

■ 학술세미나 자료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위례신도시 상월선원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세워진 비닐하우스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 아홉 분의 스님께서 한국불교의 위기를 뛰어넘고자 하는 새로운 서원을 세우고 동안거에 들어가셨습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임하시면서 아홉 분 스님들은 다음과 같이 서원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품이 넓고 그늘이 풍성한 나무 한 그루로 깨달음을 이룰 자리로 삼으셨듯이 저희도 이제 널찍한 천막 한 채로 깃들 자리를 삼았습니다. 저희에겐 이 천막이 보리수가 될 것입니다. 서릿발 같은 기상엔 달을 벗 삼을 마음만 갖춘다면 당신의 길에서 어찌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묵언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는 청구에 의거한 수행결사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한국불교 초유의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관심 있는 학자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한국불교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한국 사회 현실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되살려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동참원력을 모으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12월 28일(토) 오후 3시

장소: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천막법당

주최/주관: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외호하는 불교학자 모임

전체 사회: 정덕 스님(동국대학교)

발제 및 순서

발제 1.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시대적 지향

/ 김응철(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발제 2. 결사, 붓다 정신의 근원적 지평을 향한 불교적 의지-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

/ 황순일(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토론: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정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토론자: 김성규(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박인석(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서운교(동국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송일호(동국대학교 교수불자회장), 이범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수), 이병두(종교평화연구원장), 자현 스님(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최응천(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혜명 스님(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발제 1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
-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시대적 지향 -

김응철(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I. 서언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사찰이 폐사되고, 많은 스님들이 환속을 강요당할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바로 이 시기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서산 대사는 선조의 요청을 받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전국에 격문을 돌리고 의병을 모집했다. 조정에서는 서산 대사(1520~1604)를 선교 양종의 의승군義僧軍을 총지휘하는 도총섭으로 임명하고 구국의 임무를 맡겼다. 서산의 제자들 중에는 사명 유정, 영규 등을 비롯한 다수의 스님들이 참전했고, 사제로는 부휴 선수浮休善修(1543~1615)와 그의 제자들도 있었다.

각성覺性(1575~1660)은 부휴 선수의 제자로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시기에 의승군으로 참여했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끝난 이후 조선 조정은 각성 스님에게 남한산성을 축성할 것을 명하고 승군 도총섭을 제수하였다. 이에 각성 스님은 1624년 의승군을 이끌고 3년여 기간 동안 남한산성을 완성시켰다. 조정에서는 각성 스님의 공덕을 인정하여 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라는 직함과 함께 의발을 하사했다.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3천여 명의 의승군을 모아서 호남의 적군들을 섬멸하고 다시 남한산성으로 향했다. 삼전도의 치욕으로 병자호란이 종료되면서 각성 스님은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남한산성이 축성될 때 9개의 군막 사찰¹⁾들이 건립되었고, 그 사찰들은 지금도 남한산성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불교가 가장 탄압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국護國과 호민護民을 위해 스님들은 목숨을 바쳤다. 그 공덕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불교는 민중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으며, 그 기운이 오늘에 이르러 상월선원의 결사를 봉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월선원은 2014년 포교전법도량 건립을 위해 매입한 총 3천여 평의 부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상월선원의 부지는 조선시대의 엄혹한 척불의 칼날에도 불구하고 하심下心과 정진精進으로 쌓아올린 남한산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축성 당시 스님들은 국가로부터 음식과 의복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사찰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동원되었다. 국가로부터 식량을 지원받으면 부역일 수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스님 한 사람이 일한 양은 장정 세 사람의 분량에 해당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만큼 당시 스님들은 수행자의 자세로 축성에 참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갖춘 터전의 한 자락에 상월선원이 자리 잡고 새로운 수행불사를 시작하는 것은 한국불교 중흥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²⁾ 상월선원은 번듯한 건물에서 편안하

1) 남한산성 내의 군막 사찰은 망월사, 옥정사, 한흥사, 국청사, 동림사, 수종사, 개원사, 천주사, 장경사 등이다. 북한산성에도 중흥사를 비롯하여 11개의 군막 사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사찰들이 복원되어 운영 중이다.

2) 상월선원은 지금은 없어진 성남시의 학생중앙군사학교(일명 문무대) 군법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게 수행하는 선방이 아니라 수행자의 결사로 형성된 수행처이다. 천막으로 지어진 곳에 정법 수행의 기치를 내걸고 수도권 전법교화를 위한 수행도량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된 결사이다. 안거에 들어간 아홉 명의 수행자³⁾들은 결사를 마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정진할 수 있겠지만 이들 수행자들이 시작한 정진의 열기는 새로운 전법도량으로 계승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전국에 많은 선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상월선원은 일반 수행처의 결사와는 분명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앞으로 수행의 결실이 나타날 때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100여 개의 선원에는 평균 약 2천여 명의 스님들이 매년 하안거 및 동안거 결제에 동참하여 두문불출 용맹정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재가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종정 예하의 결제 및 해제 법문에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행자의 수행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 결실은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행자의 모습은 청정한 수행처에 있던 풍찬노숙을 하든 관계없이 숭고하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보여 주는 메시지는 근기에 따라 다르며, 사회와 불교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행력을 갖춘 스님들이 종단의 수행 전통을 계승한 동안거 묵언, 가행정진에 나선 것은 우리 불교계 내부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결사結社와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회향廻向의 정신을 살펴보고,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내포되어 있는 시대적 지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결사結社 :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안거와 동안거 수행은 일종의 청정결사 운동의 하나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결사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어진 기간 동안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함께하는 것이다. 부처님 재세 시의 승단에서는 매년 3개월의 우안거雨安居를 통해서 부처님과 직제자들이 함께 수행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철이 뚜렷하고 여름 장마철과 겨울 폭설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여름 하안거와 겨울 동안거 결제를 시행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었다.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권에서 우안거 집중수행을 선택한 이유는 우기 때 수행처 밖으로 나갈 경우 많은 생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물들을 밟아 죽일 수 있는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때문도 있다. 우기에 불살생의 계율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위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기에 수행자들이 결사를 통해 집중수행을 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고, 직제자 장로들의 해설도 쉽게 들을 수 있다. 또한 매일 부처님으로부터 명상 주제를 받아서 사유와 숙고를 함으로써 수승한 경지를 체득할 수 있다. 안거는 의문이 생길 경우 부처님이나 직제자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안거 집중수행은 구참부터 신참에 이르기까지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수행 문화와 수행 방

3) 상월선원 동안거 결사 동참대중은 자승, 무연, 성곡, 진각, 호산, 심우, 재현, 도림, 인산 스님 등이다.

법을 체득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승가공동체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만행 기간의 수행자들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수행하면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공동생활의 기회가 없다. 반면에 안거 집중수행은 도반, 동행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부처님은 “좋은 벗,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고 설한 바 있다. 수행은 혼자서 하지만 좋은 동행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수행의 지난한 길을 헤쳐 나가는 데 많은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동행 선지식, 도반은 이러한 수행의 장애를 극복하고 탁마하는 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앙굿따라니까야』 「수행에 대한 전념의 경(A7:71)」에서는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즉,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소망한다고 해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행에 전념하지 않는 수행승이 이와 같이 ‘아! 나의 마음이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하고 어떠한 소망을 일으키더라도 그의 마음은 결코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음이 계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계발된 수행자는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하기를 소망하지 않아도 “수행자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 없이 해탈하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는 수행이란 마음을 계발하는 것이고, 계발된 마음을 갖추면 해탈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저절로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들은 신행활동을 통해 마음을 계발하고, 수행자들은 결사를 통해서 마음을 계발하는 결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안거에 임하는 수행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초기불교 경전에서 상세히 설하고 있다. 특히 『앙굿따라니까야』 「모임의 품(A2:41~50)」에서는 수행자의 결사가 갖추어야 할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결사 모임은 진중함, 화합, 수승함, 고귀함, 제호, 훈련됨, 정법을 중시함, 바른 모임, 가르침을 따름, 여법함 등의 열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⁵⁾

첫째, 수행자의 결사는 ‘천박하지 않고 진중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진중한 모임이란 산만하지 않고, 불손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지껄이지 않고, 새김이 확립되고, 알아차림이 있고, 집중이 있고, 마음이 통일되고, 감관이 제어되어 있는 모임을 말한다. 이러한 결사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행처에서는 묵언수행을 시행한다.

둘째, 수행자의 결사는 ‘입에 칼을 물고 서로를 찌르는 불화와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결사에 참여한 수행자들은 화합하고 기뻐하고, 논쟁을 하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여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대하는 자세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결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수행자들은 육화六和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⁶⁾

셋째, 수행자의 결사는 ‘비속하지 않고, 수승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수행자의 결사가 수승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장로 수행승들이 사치스럽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타락을 멩으로 혐오하고, 여임을 선도하고, 도달하지 못한 것에 도달하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진을 도모하고, 뒷사람들도 장로들을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수행자의 결사에서는 방장 스님, 조실 스님 등 장로 선지식들이 신참 수행자를 제접함으로써 수승한 성취자가 나올

4) 전재성 역주, 『앙굿따라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8, pp.1466~1468.

5) 앞의 책, pp.249~255.

6) 육화경에서는 신화공주身和共住, 구화무쟁口和無諍, 의화동사意和同事, 계화동수戒和同修, 견화동해見和同解, 이화동균利和同均 등 여섯 가지 육화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수 있도록 졸탁啐啄의 공덕을 축적하고 있다.

넷째, 수행자의 결사는 '비천하지 않은 고귀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수행자의 결사가 고귀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귀한 결사에 동참한 수행자들은 사성제를 체득하여 무명을 타파하고 세간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밝은 지혜를 갖추고 해제철에는 자리아타의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 만행을 떠난다.

다섯째, 수행자의 결사는 '찌꺼기가 아니라 제호醜酬와 같은 모임'이 되어야 한다. 수행자의 결사가 제호와 같은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수행승들이 감각적 쾌락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두려움에 의해서 비리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 때문에 결사에 참여한 수행자들은 계율을 받아 지녀 신구의 삼업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스스로 청규를 만들어 지킴으로써 청정한 결사체를 유지한다.

여섯째, 수행자의 결사는 '미사여구美辭麗句에 흔들리지 않고 반대 질문에 훈련된 모임'이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심오하여 그 뜻이 깊고 출세간적이고 공공과 상응하는 것으로 잘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고 밝게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체득이 가능하다. 수행자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탐구하여 감추어진 것을 열고, 명료하지 않은 것을 명료하게 하고, 의혹을 제거"함으로써 반대질문에 훈련되고, 미사여구에 현혹되지 않는 결사를 할 수 있다. 간화선 수행자들은 "시심마是甚麼, 이뉘꼬?" 등을 비롯한 화두를 참구하는 정견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일곱째, 수행자의 결사는 '재물을 중시하지 않고 정법을 중시하는 청정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수행자들은 "세상에 재가의 흰 옷 입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이득에 결박되거나 혼미해지지 않고 탐착하지 않고 여임의 지혜를 얻어 수용"함으로써 정법을 중시하는 청정한 결사체를 운영할 수 있다.

여덟째, 수행자의 결사는 '가르침과 계율에 맞는 갈마羯磨를 전하고 가르침과 계율에 맞지 않는 갈마를 전하지 않는 바른 모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르침과 계율에 맞는 갈마를 밝히고, 가르침과 계율에 맞지 않는 갈마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바른 모임을 계승하고 후대에 전승한다. 이를 위해서 수행자들은 자자와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법을 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홉째, 수행자의 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부합하는 갈마를 통해서 가르침을 따르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불교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정법에 의지함으로써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바라밀행자가 된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아타의 보살행을 실천함으로써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

열 번째, 수행자의 결사는 '여법하게 논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여법하게 논의하는 모임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쟁사를 수용하지만 서로 해결하고 해결을 도모하고, 이해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력과 이해력이 있어서 서로 관대하고 세력에 따라 편향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행자들은 세력勢力을 만들지 않고, 세력에 편향되어 옳고 그름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양긔따라니까야』 「행복하고 유쾌하게 지냄의 경(A6:78)」에서는 '수행자가 현세에서 행복하고 유쾌하게 지내고 번뇌의 부숨을 위한 완전한 수단을 갖추는 여섯 가지 수단'을 설하고 있다. 여섯 가지란 "가르침을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멀리 여임을 좋아하고, 희론의 여임을 좋아하는 것" 등이다.⁷⁾

수행자들은 일상의 삶이 결사이지만 재가불자들은 안거에 기도를 입재하고 적극적으로 삼보를

7) 앞의 책, p.1311.

외호할 때 비로소 결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재가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부질없는 욕심과 번뇌망상을 버리는 것을 배우고, 괴로움의 요인들을 멀리 여의고, 검증되지 못하고 결론을 낼 수 없는 희론戲論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결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 사찰들은 수행승들이 안거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추어 기도 입재를 봉행하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 이것은 출가의 수행과 더불어 재가불자의 신행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수행과 신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삼보를 외호하는 공덕을 지을 수 있다.

III. 회향廻向 :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의 삶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의 삶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중생들의 이고득락離苦得樂, 발고여락拔苦與樂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보살들은 세상의 어둡고, 악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서 나투어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중생의 고통이 다할 때까지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의 화신불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화신불은 지혜로 중생을 일깨워주는 지증보살智證菩薩과 중생의 삶 속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함께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비증보살悲證菩薩의 삶이 있다. 사바세계라고 이름하는 세간에는 한량없는 지증보살과 비증보살이 활동하며 전법교화에 앞장설 때 청정한 불국토가 구현될 수 있다. 세간에서 붓다의 삶을 실천하는 보살이 있는 곳이 바로 현세정토이며, 불국토가 된다. 『유마경』에서는 윤회의 세계로 들어가는 보살의 방편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적절한 방편을 무시한 채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보살에 있어 해탈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그와 반대로 방편을 지닌 채 윤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보살의 해탈입니다. 방편 없이 선정과 삼매와 명상 등에 탐닉하는 것은 보살의 속박이고, 방편과 함께 선정 및 삼매의 맛을 즐기는 것은 보살의 해탈입니다. 방편이 뒷받침되는 지혜는 해탈이고,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방편은 속박입니다.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방편은 속박이고, 지혜가 뒷받침되는 방편은 해탈입니다.⁸⁾

지혜가 뒷받침되는 방편이 해탈이라는 말은 “그릇된 견해와 번뇌의 수면과 집착과 성냄을 끊고 모든 선근을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향하며, 이러한 일을 조금도 과시하지 않는 것”⁹⁾을 의미한다.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를 화신보살이라 칭할 수 있다. 화신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나투기 때문에 세간의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다. 화신보살이 비구수행승, 일반수행자, 성직자, 길상자, 목욕자, 지혜에 정통한 자, 고귀한 자, 거룩한 자로 불리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의 원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섯 가지란 다음과 같다.

개체가 있다는 견해를 부수었고, 회의적 의심을 부수었고,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을 부수었고, 탐욕을 부수었고, 성냄을 부수었고, 어리석음을 부수었고, 자만을 부수었기 때문이다.¹⁰⁾

8) 박용길 옮김, 『유마경』, 민족사, 2010, p.99.

9) 위의 책, p.100.

10) 전재성 역주, 앞의 책, pp.1480~1482.

“개체가 있다는 견해를 부수었다”는 것은 유신견有身見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신견은 우리의 몸은 “오온五蘊의 일시적 화합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자아가 있고, 또 오온은 자아의 소유라는 그릇된 견해”를 뜻한다. 회의적 의심은 부처님의 존재, 팔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열반, 계율을 지키면 얻어지는 이익, 전생과 내생, 업과 업의 과보, 연기법 등에 대한 의심을 말한다. 이러한 의심은 확고한 신심을 갖추고 실천하는 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흐름에 드는 것을 방해한다.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은 계금취견으로 불필요한 금계를 정해 놓고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한다. 탐진치 삼독심과 자만이 부수어질 때 수행자는 진리의 흐름에 들어 깨달음의 세계로 장애 없이 막힘없이 진리의 여행을 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리의 흐름에 들어선 보살은 자신 있게 세상에 이익을 주면서 전법교화의 선봉에 설 수 있다. 『양국따라니까야』 「이익을 주는 사람의 경(A3:24)」에서는 세상에 이익을 주는 세 부류의 사람을 설하고 있다. 세 부류는 깨달은 부처님·가르침·참모임 등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사람, 사성제를 체득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번뇌를 부수어 해탈에 도달한 사람이다.¹¹⁾

삼보에 귀의한 재가불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세상에 이익을 준다. 그 이유는 삼보에 귀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베풀기를 원하고, 더 윤리와 도덕적 규범을 지키기를 원하고, 더 지혜롭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배우고, 베풀고, 지키고, 지혜롭게 얻은 공덕을 널리 회향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익되게 한다.

사성제의 지혜를 체득한 수행자들은 괴로움의 현상과 괴로움의 발생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양태,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실천할 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괴로움을 소멸시켜 줄 수 있다. 사성제의 지혜를 통해 무명이 타파된 수행자는 많은 중생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고, 정법을 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익과 안락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번뇌를 부수고 해탈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의 경계에 직면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상과 사물을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해탈에 도달한 수행자는 삼독심에 이끌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온하고 평화롭게 세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을 이익되게 한다.

수행자들은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재가불자들은 신행활동을 통해서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산을 갖추고, 그것을 활용하여 쉽게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천할 수 있다. 일곱 가지 재산이란 신재信財, 계재戒財, 참재慫財, 괴재愧財, 문재聞財, 시재施財, 혜재慧財를 말한다.¹²⁾

첫째, 신재信財는 믿음의 재산으로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는 높은 님, 사람을 길들이시는 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이라고 여래의 깨달음을 믿는 것이다. 이는 여래십호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자신도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둘째, 계재戒財는 지킴의 재산으로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고,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는 것

11) 위의 책, p.399.

12) 위의 책, pp.1373~1374; 「재물에 대한 상세의 경(A7:6)」 내용 참조.

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삼가는 것”을 말한다. 계를 지키는 재산은 오계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동시에 선근공덕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셋째, 참재懺財는 양심의 재산으로 “신체적인 악행, 언어적인 악행, 정신적인 악행 등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행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말한다. 참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구의 삼업으로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재산이 된다.

넷째, 괴재愧財는 수치심의 재산으로 “세상에 고귀한 제자들이 신체적 악행, 언어적 악행, 정신적 악행에 대해 창피함을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행한 것에 대해 창피함을 아는 것”을 말한다. 창피함을 아는 괴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는 것으로 스스로 윤리 도덕을 지키므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공덕의 재산이 된다.

다섯째, 문재聞財는 배움의 재산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모아서,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고 원만하고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시키는 가르침을 자주 듣고, 기억하고, 언어로써 외우고, 정신으로 성찰하고, 바른 지혜로 잘 꿰뚫는 것”이다. 배움의 내용은 훌륭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원만하고 청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배우는 방법은 듣고, 기억하고, 염송하고, 성찰하고, 지혜로 숙고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여섯째, 시재施財는 나눔의 재산으로 “마음속에 간탐慳貪의 티끌을 제거하여 관대하게 주고, 아낌없이 주고, 기부를 즐기고, 요구에 응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집에서 정신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를 베푸는 보시행은 제일바라밀이면서 동시에 법시와 무외시 등과 함께 보시바라밀의 실천원리이다.

일곱째, 혜재慧財는 지혜의 재산으로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고귀한 꿰뚫음으로 올바로 괴로움의 종식으로 이끄는 지혜”를 말한다. 지혜의 재산이란 사성제의 지혜를 통해서 괴로움의 현상과 원인, 소멸과 올바른 소멸의 실천 등을 확고하게 체득함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견을 성취하는 것이다. 사성제의 지혜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법교화의 법륜法輪을 굴릴 수 있다.

상월선원은 수행자의 결사처이면서 동시에 중생회향을 실천하는 회향처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보리회향, 실제회향, 중생회향과 같은 회향의 정신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 상월선원의 천막결사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IV.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의의와 지향점

1.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의의

상월선원 수행자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결사에 임하고 있는가는 결사대중이 발표한 고불문 告佛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불문에서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고 은둔자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황량한 트랙이 붓다가야가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붓다가야는 석존釋尊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전법교화의 발원지가 된 곳이다. 상월선원이 붓다가야가 되고 천막법당이 보리수가 될 것이라는 서원은 현대 한국불교가 지향하는 새로운 깨달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붓다가야에서 석존의 지혜광명이 온 세상으로

펼쳐졌듯이 상월선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서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월선원이라는 수행처 이름은 “서릿발 같은 기상에 달을 벗 삼을 수행자의 정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수행처에서 비구 수행승들은 최소의 음식, 한 벌의 옷, 한 평의 잠자리에서도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눈푸른 납자로서의 본분사本分事에 충실할 것을 서원하였다. 이러한 서원은 수행승이 갖추어야 할 무소유의 정신과 용맹정진의 원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많은 수행처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월선원 동참대중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청규를 스스로 제정하고 실천을 맹세하였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셋째, 옷은 한 벌만 허용한다.

넷째,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묵언한다.

일곱째,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가행정진과 일종식, 단삼의를 비롯하여 안거 기간 동안에 삭발과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묵언수행 등은 스스로 최소한의 수행 환경 속에서 정진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발원문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상월선원은 한국불교의 수행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출선수범하겠다는 의지이며, 둘째는 상월선원을 한국의 붓다가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력이다.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는 형식뿐만 아니라 동참대중의 원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부여는 현재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상월선원 동안거는 산중의 한적한 안거처를 떠나서 도심 포교사찰에서 봉행한다는 점에서 장소의 파격성이 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나 방식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통 수행처가 산중이나 대중의 발길이 없는 한처閑處에 위치하는 이유는 집중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왕래가 많은 위례 신도시의 상월선원을 안거처로 정한 것은 도심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법한 수행처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둘째, 상월선원 동안거는 천막법당에서 봉행함으로써 겨울의 강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전국의 선원은 대부분 사격寺格을 갖춘 사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행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겨우 비바람만을 피할 수 있는 천막법당의 수행은 북풍한설의 칼바람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풍찬노숙으로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눈푸른 납자들의 수행결기는 보살행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상월선원의 동안거는 재가불자들도 함께 외호대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전통 간화선 수행자의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화선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가불자들이 동안거 결제에 동참함으로써 재가불자의 수행풍토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외국에서 유입된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들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에서 도심에서 수행자들이 수행의 모범을 보

여 줌으로써 불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 주고, 사회적으로는 수행포교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상월선원의 동안거는 조계종단의 종지종풍인 간화선의 사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종교는 신뢰의 위기, 신앙의 위기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급격한 종교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불교는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상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한국불교는 수행법을 활용한 포교 방법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 상월선원의 동안거 결제는 간화선을 활용한 수행포교 전통을 발전시키고, 명상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아홉 분의 납자들이 보여 주는 수행 가풍이 한국불교 간화선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시대적 지향점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지향하는 목표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앞으로의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한국불교의 현실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면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상월선원은 수행정진을 통해 변화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실천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고도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빅 데이터 등으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당장은 첨단 기술 도입의 결과가 전체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실직에 내몰리는 대신 로봇이 일을 하는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나아갈 방향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를 고심할 필요가 있다. 결사에 임하는 아홉 분의 스님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수행결사 정신이 사회적으로 파급되고 영향력을 갖는다면 사회 변화를 촉진시키고, 불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메시지와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결사를 외호하는 대중들이 조직화되고, 실천 방향을 정하여 함께 동참하는 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상월선원은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변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수행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는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이지만 이는 정제된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수행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동참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막결사가 오랜 불교사의 전개 과정에서 수많은 안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안거로 자리매김하려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많은 대중의 관심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한국 사회는 남북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계층 문제,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중첩해 있다. 여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간의 이념적 대립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는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불교계의 내부역량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독자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불교가 대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역량이 부족하게 된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가불교 인재를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불교는 1700년 축적한 저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불교적 정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인재가 있다. 다만 이들 인재들이 불교계의 각 종단이나 사찰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만 해도 많은 인재를 신속하게 결집시킬 수 있다.

셋째, 상월선원은 간화선 수행법을 중심으로 수행포교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상월선원은 운수납자의 수행처이면서 동시에 각계각층의 많은 재가 인재들이 수행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비록 한 공간에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별도의 공간에서 선수행 관련 강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인재들의 수행참여 열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월선원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면 많은 출가수행자들이 동참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동참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출재가의 전문수행자들이 상월선원에 주석하면서 신도 및 일반인들의 실참實參을 지도하고 제접提接할 수 있어야 한다. 상월선원은 간화선 중심의 실참수행과 이를 응용한 생활 속의 수행 방법을 함께 대중화하는 역할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불교 있는 명상 붐의 저변에는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치유 및 생활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금강승 불교의 수행법도 한국사회에 상륙하여 수행포교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한국불교 수행전통인 간화선 실참자는 주로 출가 대중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을 뿐 재가불자들의 수행포교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행포교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전통 간화선은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상월선원은 많은 불자들의 수행 욕구를 하나로 결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행적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월선원은 향후 수도권 수행포교를 책임질 수 있는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를 바란다. 현재 서울에는 국제선센터를 비롯하여 조계사 및 봉은사 등에서 선학대학원과 재가 선방 등을 운영하면서 수행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종단 내외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각 사찰의 수행지도가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인들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갖추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월선원은 이제 막 첫 안거가 시작되었을 뿐 전문적인 지도가 가능한 시설이나 실참 방법도

개발하지 못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종단 내외의 역량이 결집되면 어떤 목표든 성취할 수 있는 종단적 차원의 관심과 종도들의 동참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조건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진취적 목표를 세운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V. 결어

현재의 상월선원은 천막결사를 시작으로 수행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있는 초기 단계를 준비 중이다. 지금까지는 인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수행 환경이 여법한 것도 아니고, 신도들의 외호外護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수행납자들의 결기는 엄동설한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드세고, 종단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상월선원은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과 역사적으로 연계된 사실들이 많고 수도권 동부 지역과 서울 강남 지역에서 거주하는 불자들이 동참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수행자들의 원력을 통합한다면 상월선원은 대중 수행처로서의 전통적인 위상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포교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상월선원은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을 위해 결사를 선택했고,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의 삶을 위해 회향을 선택하였다. 즉 수행결사를 통해 석존의 가르침을 체득하여 그 공덕을 널리 세간에 회향하고자 하는 원력이 상월선원을 감싸고 있다. 가행정진과 용맹정진으로 표현되는 수행결사는 동참자의 보리회향 공덕, 외호자의 실제회향 공덕, 그리고 중생회향으로 실천되는 원력을 담고 있다.

상월선원의 수행자들은 조용히 묵언 수행에 임하고 있으나 외호하는 대중들은 정진을 통한 변화의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실천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상월선원은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월선원은 간화선 중심의 수행포교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 서기를 바란다. 그리고 상월선원은 수도권 서부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수행포교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원력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여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과 에너지의 결속이 필요하다.

발제 2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

황순일(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1.

불교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외부의 힘을 통해 교단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화'라고 한다면, 교단 내부적으로 수행운동을 통해 개혁을 이루는 것을 '결사'라고 할 수 있다. 정화는 고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이 제3결집에 앞서 교단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교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승려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교단에서 축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법왕(dhamma-rāja)으로서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교교단 내부의 불순함을 제거하여 불교가 더욱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화라고 했으며, 전문성왕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대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불교군주들 사이에서 불교교단을 정화하는 것은 엄청난 공덕을 쌓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전과 수많은 전쟁에서 행한 악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결사는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불교교단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실천한 공동체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경우 보조 지눌의 정혜결사, 학명의 선농결사, 퇴옹의 봉암사 결사, 현암의 건봉사 결사 등이 있었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대 스리랑카의 경우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의 마하위하라(Mahāvihāra) 교단이 도시에서 세속화되어 갈 때 일단의 스님들이 스리랑카 중부의 산악 지역에 모여서 스스로를 아란니까(Āraññika)라고 이름하고 숲속 불교전통을 세운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란니까는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중심으로 숲속에서 생활하는 전통을 유지했다. 이들은 힌두교 쉬와(Shiva)신을 숭배하는 남인도 촌라(Chola)의 스리랑카 침입과 70여 년에 걸친 점령으로 아누라다푸라가 파괴되고 불교가 약화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며 스리랑카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동력을 제공했다. 이후 스리랑카 불교는 아란니까(Āraññika)를 중심으로 마하위하라(Mahāvihāra)로 통합되었고, 이렇게 통합된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널리 전파되면서 이들은 오늘날 남방불교의 모태가 되었다.

2.

남방불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1400년대 후반 남부미얀마의 담마체띠(Dhammaceti)왕이 주도하여 행했던 깔야니시마(Kalyāṅṣīmā) 운동을 '정화'라고 한다면, 1800년대 중반 태국의 왕 몽쿿(Mongkut)이 왕이 되기 전 출가 시기에 행했던 몬(Mon) 불교 중심의 불교개혁 운동은 일종의 '결사'라고 할 수 있다.

담마체띠(Dhammaceti)는 승려 출신의 왕이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남부미얀마를 라만나데사(Rāmaññadea)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을 수완나부미(Suvannabhūmi)로서 아쇼카왕 시기에 소나(Soṇa)와 윗따라(Uttara)가 파견되어 동남아시아 최초로 불교가 전파

된 곳으로 믿었다. 하지만 재위 당시 남부미얀마에는 고대 인도로부터 중단 없이 이어지는 불교 전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불교교단 또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을 뿐이었다. 왕은 자신이 통치하는 남부미얀마에 정통성 있는 불교교단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대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의 예를 따라 불교교단의 정화에 나서게 된다. 왕은 불교교단의 확립에 필수적인 시마(simā)가 오랫동안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남부 미얀마의 모든 불교교단이 정통이 아님을 선언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통합교단인 마하위하라(Mahāvihāra)를 ‘매우 청정하고 정통성이 있는 교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 왕에 의해 스리랑카로 파견된 2그룹의 22명의 승려들은 깔야니(Kalyāṇī)강에 설치된 우다까웃케빠시마(udakukkhepasimā)에서 수계를 받고 아쇼카왕의 아들인 마힌다(Mahinda)를 출발점으로 하는 스리랑카 불교전통에 편입되게 된다. 이들이 남부미얀마로 돌아오자 왕은 깔야니시마(Kalyāṇisimā)를 출발점으로 정화운동을 시작했고, 남부미얀마의 모든 승려들에게 스리랑카 전통에 따라 다시 수계를 받도록 했다. 기록에 따르면 1400년대 후반까지 약 1만 5,666명의 비구들이 새롭게 수계를 받았고, 이 전통이 미얀마 전체로 퍼져 나가게 된다.

한편 몽컷(Mongkut)은 왕이 되기 전에 태국 왕가의 법도를 따라서 어린 시절에 출가했다. 개인적으로 불교에 빠져들었던 왕자는 빨리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출가 기간을 연장해서 율장을 비롯한 많은 불교 문헌들을 연구했고 태국 각지의 불교사원들을 순례했으며 많은 불상과 금석문 등을 발굴했다. 그는 태국의 전통교단인 마하니까야(Mahānikāya)의 여러 가지 관행들이 빨리어 율장에 의거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고, 특히 승단 확립에 필수적인 시마(simā)가 오랫동안 올바르게 설치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민했다. 그는 북부미얀마의 박해를 피해 태국에 들어와 있었던 몬(Mon)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깔야니시마(Kalyāṇisimā)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올바른 수계 전통 확립을 통해 교단의 청정성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교단 내부의 개혁운동으로서 깔야니시마(Kalyāṇisimā)의 정통성을 담보로 1833년부터 철저한 계행에 기초한 새로운 수행 전통을 확립하게 된다. 수많은 태국의 승려들이 몽컷을 따라서 깔야니시마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수계를 받았고 이들은 점차적으로 기존의 교단인 마하니까야(Mahānikāya)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은 1902년 승단포고령을 통해서 이 새로운 수행 전통이 탐마유티까(Thammayutika)라는 공식적인 교단으로 인정받으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오늘날 태국의 양대 종단 중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다.

깔야니시마(Kalyāṇisimā)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남부미얀마의 정화와 근대기 태국의 결사는 각기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전자의 경우 1885년 미얀마 마지막 끈바웅(Konbaung)의 몰락 이후 여러 갈래로 흩어진 미얀마 불교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남방불교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스리랑카 중심주의의 효시가 되었고 동남아시아 불교가 스리랑카 불교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 빨리어 경전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초기 불교화를 이끌었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자’고 하는 철저한 계행 중심의 불교교단인 탐마유티까를 발족시켰지만 결국 태국불교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양자 모두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진정한 비구가 된다는 것을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마를 통한 수계 전통의 확립을 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 즉 내용보다는 형식, 과정보다는 절차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에서 그 한계가 명확했다.

3.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자’고 했던 몽컷(Mongkut)의 정신은 현대 한국불교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퇴옹의 봉암사 결사에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구호로 다시 나타난다.

1947년 퇴옹, 청담, 자운 등이 주축이 되어 봉암사에서 이루어진 결사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결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한국불교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계율과 의식을 공주규약이란 청규를 통해 확립했다. 사실상 우리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온 신행문화나 사찰 생활양식 및 예불 의식 등의 불교문화가 대부분 봉암사 결사를 통해서 정리되고 확립되었다고 조성택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500여 년에 걸친 조선시대의 불교탄압과 일제시대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불교 왜곡 속에서 청정한 비구전통을 회복하자는 것이 봉암사 결사의 지향점이었다. 서로 도반이었던 퇴옹과 청담이 1942년 선학원에서 만나 공동수행을 약속했고, 1947년 서울에서 기증받은 수천 권의 불서를 봉암사로 보내고 10월경에 스님들이 입주하면서 역사적인 봉암사 결사가 시작되었다.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은 ‘부처님의 법대로 살자’는 구호하에 모든 비불교적 요소들을 배제하려 했다. 따라서 봉암사의 스님들은 기복신앙과 불공을 거절하고 살림을 자급자족하려 했으며 붉은색 가사를 버리고 지금과 같은 괴색으로 가사를 물들였다고 한다. 또한 공동생활의 청규로서 공주규약을 만들고 참선수행, 포살, 능엄주, 자주자치, 계율준수 등을 확립했고 승가의 수행과 생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했다.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의 엄격한 계행과 수행이 전국 각지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승려들에 대한 불신과 냉대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많은 스님들이 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봉암사 결사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혼란기에 빨치산의 활동으로 스님들의 계행과 수행이 위협받으면서 1950년 3월 동안거 직후에 해체되었다고 한다. 비록 봉암사 결사는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은 봉암사 결사의 정신을 계승했고 근대 한국불교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봉암사 결사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봉암사 결사가 한국불교의 이정표로서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불교 중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도 아쉬움은 남아 있다. 일제가 끝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혼란기에 행해진 봉암사 결사는 공주규약과 같은 청규와 결사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구술 이외에 스님들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당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기록 매체가 부재했다는 한계도 있지만, 일제 직후 대처 중심의 불교 지형에서 청정비구 전통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봉암사 결사가 지닌 승가공동체 운동이란 특성이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4.

그렇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먼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서 아란니까(Āraññika) 숲속불교 전통의 현대적·도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현대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에서도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출발점이 된다. 고대 인도에서 불교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떠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불교는 스스로 변화해 왔고 오늘날의 불교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변화해 왔다. 즉 현대불교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님들의 안거가 깊은 산속에서 죽비를 맞으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쳐진 고답적인 태도의 결과일 뿐이다.

스리랑카의 아란니까(Āraññika) 숲속불교 운동은 도시를 떠나 숲속과 동굴에 기거하면서 세속적인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자신들이 속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떠나는 수단이었고 이들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스리랑카 불교의 현실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한국불교에서 진행되었던 보조 지눌의 정혜결사, 학명의 선농결사, 퇴옹의 봉암사 결사 등도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수행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를 중심으로 결사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숲속에서 고립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며 수행하는 야단법석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청규는 엄중하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웃은 한 벌만 허용한다.”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과 목욕은 금한다.”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묵언한다.” “규약을 어길 시 조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현장에서 야단법석을 연다는 것은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며, 자칫 수행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경전 그 어디에도 스님들의 선 수행을 위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 동남아시아의 남방불교 사원을 순례해 보면 사찰이 젊은 불자들과 어린아이들로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방불교의 사원에서는 항상 야단법석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들의 행위가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제지하지 않는다. 간혹 보이는 위빳사나 수행공간의 경우 재가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있을 뿐이며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재가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통제하지는 않는다.

이는 남방불교 교단에서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가자들은 불교교단 유지를 위한 거처, 의복, 음식, 약품이란 네 가지 조건을 제공하고(cātupaccayadāyaka), 출가자들은 이렇게 찾아온 일반 신도들이 올바르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불교교단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고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 삶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불교에서 출가자들의 본분사는 선 수행이다. 출가자의 수행에는 때와 장소가 따로 없으며 출가자라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한국불교에서는 재가의 보시와 승가의 수행이 서로 분리된 채 평행선을 달려 왔다. 재가자는 큰 절의 선원에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선 수행을 위해 안거 동

안 스스로를 재가자로부터 고립시켰다. 어떻게 보면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야단법석은 승가의 수행과 재가의 보시와 응원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와 같다. 즉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청구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는 동안에, 결사를 외호하는 스님들은 재가자들이 상월선원에 와서 천막결사를 응원하고 보시하여 올바르게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한국적인 승가와 재가의 상호보완적 구조가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앞마당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남방불교에서 깔야니시마(Kalyāṇisimā)를 중심으로 한 정화와 결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 불교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얀마와 태국의 불교에서 이 정화와 결사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양자 모두 수행 중심의 개혁운동이라기보다는 수계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운동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불교계는 남방과 달리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절차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진정한 비구가 된다는 것은 올바른 시마를 통한 수계 전통의 확립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행과 선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실상 한국불교는 스님들의 지위를 선방에서 얼마나 많은 안거를 했는지를 통해서 결정할 정도로 잘 정비된 선 수행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철저한 계행과 선 수행에 있어서 출가자가 스스로 모범이 되고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 현재 한국불교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불교는 한국사회의 현대화와 세속화에 따른 불교인구 감소와 저출산 핵가족화에 의한 출가자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봉암사 결사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통해 출가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일제의 잔재와 대처 중심의 지형을 돌파하여 청정비구교단 중심의 한국불교를 만들어냈듯이,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출가자의 본분사인 철저한 계행과 선 수행의 확립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불교가 직면한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밝고 건강한 한국불교 특유의 수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사회는 4차산업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즉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연결사회의 구성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생각을 사회 구성원들 전체와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를 즐기고 있다. 열린 결사로서 상월선원은 숲속에 고립된 채 행하는 수행운동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며 인터넷을 통해 구성원들 모두가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현대사회의 키워드를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적 수행운동에 과감하게 적용한 실례가 될 수 있다.

현대 태국불교에서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숲속불교 수행전통을 새롭게 일으켜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붓다닷사(Buddhāda) 스님은 생전에 담마테인먼트(dhammatainment)란 용어를 좋아했다고 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담마(dhamma)와 즐길거리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결합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출가자로 철저한 계행과 수행에 스스로를 던졌지만, 재가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앞마당의 야단법석은 명상을 뜻하는 매디테이션(meditation)과 즐길거리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결합한 매디테인먼트(meditainment)로서 모두가 함께하고 즐기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

5.

이제 상월선원은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숲속불교 운동으로 도심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도시에서는 포교하고 산속에서 수행한다는 패러다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도심진정한 수행의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야 한다. 명산대찰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스스로에 안주하면서 현대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사회는 도시화와 함께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로 이동했지만 한국불교는 여전히 물려받은 유산과 함께 명산대찰에 안주해 왔다. 불교가 도시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사이에 타종교들은 도시에 맞는 시스템과 장엄한 건축을 통해 도시를 장악해 버린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도시를 단순한 포교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도시에 현재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숲속불교 수행전통을 통해 한국불교는 도시로 나가야 하고 신도시로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서 출가자들이 철저한 계행과 수행을 통해 모범을 보임으로써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씻어내고 한국불교가 도시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엄격한 청규를 통해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외호하는 스님들이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찾은 재가자들에게 야단법석을 열어서 스님들의 수행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즉시적이고 즉각적인 사회적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실상 절에 스님들이 넘쳐나야 신도들이 찾아오고, 신도들이 찾아와야 불교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매디테이션(medit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불교수행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출가와 재가 모두가 참여하여 즉시적으로 소통하며 즉각적으로 공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풍을 진작하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한다.

토론

상월 천막선원 결사의 의의

김성규(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영남대학교 교수)

2019년 동안거한다고 상월 천막선원이 문을 열었다. 갑자기 조계종의 총무원과 교구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매일 방문하여 격려하며 지원하고 있다.

원래 결사의 의미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일이 성취될 때까지 혹은 평생을 그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신라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결사가 있었다. 발징의 염불만일결사와 지눌의 정혜결사 운동과 요세의 백련결사운동이 그것이다.

지눌(1158-1210)은 속성이 정씨이며 황해도 서흥 출신이다. 8세에 출가하여 조계후손 종휘에게 득도하고 수학하였다. 명종 12년 25세에 승과에 합격하고 창평 청원사에 머물렀다. 여기서 『육조단경』을 읽고 특히 “진여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육근에 들어 비록 깨달음을 얻더라도 망상에 물들지 않아 진여자성은 항상 자재하다.”는 구절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 동 15년에 하가산 보문사에서 대장경을 ‘원돈관문’에 두게 되었다. 마침 법우 득재가 공산 거조사에서 초청하므로 그곳에 가서 이에 정혜사를 조직하고 제종의 승려들을 널리 맞아들여 정혜를 닦으니 따르는 자가 많았다. 거조사는 좁고 대중의 수도처로는 적합하지 않아 순천 송광산 길상사(지금의 송광사)로 ‘정혜결사운동’을 옮기기로 하여 신종 3년에 그곳으로 옮겨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여기서 11년 동안 청중을 거느리고 법을 설하고 선을 닦게 하니 사방에서 모여드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요세가 중심이 되어 1216년 백련사(만덕사라고도 함)에서 무인란 이후 변화한 사회와 불교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면서 참회행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이 결사는 50년을 은거하면서 ‘백련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따르는 제자가 38명이었고, 입사한 수행자들이 300명에 이르렀다.

건봉사를 중심으로 발징 화상(?-796)은 염불만일회를 이끌었다. 신라시대에 시작한 염불수행은 최근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발징은 ‘권염문’ 소회를 지어 누구나 읽고 염불을 통하여 불교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모임을 이끌었다.

염불은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는 것이다. 이것은 염불만 그런 것은 아니고 불교의 모든 수행의 목표가 다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염불이 탁월한 점은 실행하기 비교적 아주 쉽고, 얻기도 쉽다는 것이다. 염불을 통해 소원이 성취되고 장애가 사라지며 무생법인,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난 바가 없다는 깨달음의 확신을 의미한다는 진리를 얻게 된다.

극락왕생하며 성불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 불보살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비심과 우리가 불보살님을 그리는 마음이 만나서 얻어지는 것이다.

천 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는 이생 인연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염불하며 살자는 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근대에 이르러 1947년에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운동

을 펼치기도 했다. 1947년 가을, 청담·성철·자운·보문·우봉 스님 등 20~30대의 수행열기 시퍼런 스님들이 봉암사에 모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시작한 봉암사 결사는 당시 일본식 불교의 잔재를 털어내고 전통으로 회귀하자는 일종의 불교혁명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의 눈 밝은 스님들 사이에 퍼졌고 향곡·월산·혜안·법전·성수·법웅·보안·보경·지관 스님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대중들이 결의하고 성철 스님이 붓으로 직접 쓴 당시의 공주규약共住規約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一. 삼엄森嚴한 불계佛戒(부처님의 계율)와 숭고한 조훈祖訓(조사들의 가르침)을 근수역행勤修力行(온 힘을 다해 수행)하여 구경대과究竟大果(바라는 궁극의 목적)의 원만 속성速成을 기期함.

이 봉암사 결사는 현 조계종의 모습을 있게 한 결사운동이다.

지금 상월 천막선원을 지어 결사를 펼치고 있다. 모든 것을 비운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뜻을 모아 천막을 짓고 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지금 천막을 지어 상월선원 결사를 이끌고 있는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한 이 결사는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며, 또한 불자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모두 일어나는 사건만을 직시하기로 하자. 그러면 불교개혁에 엄청난 에너지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소카왕의 귀로 말미암아 인도 전역을 불교화하였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스님의 수행과 결사는 또한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든다.

결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필요하면 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으면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 불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일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불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至道無難

道心堅固 隨要見性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도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하늘에 이르면 기필코 견성할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토론문

박인석(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

I. 김응철 교수님의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시대적 지향」에 대한 토론문

김응철 교수님의 발표는 상월선원이 위치한 부지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임진왜란 이후 남한산성이 축성될 때 수많은 스님들이 동원되어 그 일을 행했던 공간의 연장선 속에 이 부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사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필자(김응철 교수님)는 결사의 자취를 초기불교에서부터 찾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초기경전인 『앙굿따라니까야』에 근거하여 결사 모임이 갖춰야 할 열 가지 원리, 즉 진중함·화합·수승함·고귀함·제호·훈련됨·정법을 중시함·바른 모임·가르침을 따름·여법함 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필자는 결사를 통한 자각이 중생에게 회향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사’와 ‘회향’ 이 두 가지 용어가 바로 필자의 논문 제목인 ‘중생과 함께하는 붓다, 붓다와 함께하는 중생’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후 필자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의의를 정리하고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그 의의로는 첫째 상월선원의 동안거가 도심 포교사찰에서 행해진다는 장소의 파격성이고, 둘째 천막법당이 지니는 열악한 환경의 극복, 셋째 외호 대중의 적극적 활동, 넷째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의 개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지향점으로는 첫째 수행정진을 통한 변화의 메시지를 제시할 것, 둘째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변화의 대안을 제시할 것, 셋째 간화선 수행법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것, 넷째 수도권의 수행포교를 책임질 수 있는 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필자의 서술처럼, 상월선원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지만, 종단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필자가 제시한 네 가지 지향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단기간에 도출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점 역시 분명합니다. 이런 지향점들은 결사가 치열하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비로소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사가 지속되기 위해 승가와 재가에서 보다 더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II. 황순일 교수님의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문

황순일 교수님의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남방불교에서 행해졌던 ‘정화’ 혹은 ‘결사’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앞의 논의에 의거하여 한국불교에서 일어났던 결사의 맥락 속에서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내용 가운데서 필자(황순일 교수님)는 ‘정화’와 ‘결사’의 두 가지 용어의 함의를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화’란 불교 외부의 힘에 의해 교단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사’는 교단 내부의 수행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방불교에 있어 정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400년대 후반 남부미얀마의 담마체띠왕이 주도했던 ‘깔야니시마 운동’

을 들 수 있고, 결사의 사례로는 1800년대 중반 태국의 왕 몽콕이 왕이 되기 전 행했던 ‘문 불교 중심의 개혁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결과에 대해 필자는 먼저 남부미얀마의 정화운동은 후대에 이르러 미얀마 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미얀마의 불교 역시 남방불교 전반에 퍼져 있는 스리랑카 중심의 불교에 편입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 결사운동은 철저한 계행 중심의 불교교단을 발족시키긴 했지만, ‘수계 전통의 확립’이라는 절차의 문제에 치중함으로써, 불교의 내용적 측면, 가령 수행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남방불교의 불교개혁 운동을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상월선원의 천막결사에 대해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이 결사가 기존의 숲속불교 전통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도시적으로 전환된 결사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자의 이런 주장은 남방불교 가운데 현대 태국의 고승인 붓다닷사 스님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붓다닷사 스님은 생전에 ‘담마테인먼트(dhammataintment)’,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담마(dhamma)와 즐길거리인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합성한 이 용어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현대 도시문명에서 불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붓다닷사 스님의 견해에는 불교의 교단이 더 이상 도시와 먼 산중으로 들어가려 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도시로 나와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논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방불교에 있어 일어났던 몇 가지 결사의 규모와 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결사가 성립되고 그것이 불교교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결사가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참여 인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태국 불교에서 일어났던 ‘문 불교 중심의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인원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걸린 기간 등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월선원의 결사는 이제 막 시작하였으므로, 결사의 진정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결사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만불교의 경우 현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불광산사 등의 불교교단은 도심 포교를 매우 중시합니다. 도심 포교원은 외양에 있어서도 매우 현대적이어서 도시의 불교도들이 큰 부담 없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교원이 현대적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불교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을 보다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을 남방불교와 관련하여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막결사 정신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송일호(동국대학교 불자교수회 회장)

한국불교는 탈종교화와 불교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출가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도 수 1위의 자리마저 타 종교에 내주고 말았다. 조계종단이 앞장서 새로운 불교성전사업과 포교사업 등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틀림없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화'와 '결사'라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여 왔다. 한국불교의 경우, 외부에 위한 정화보다는 내부의 힘을 모은 결사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특히 정혜결사 등 여러 차례 내부로부터 수행자들이 고행을 통해 불교개혁을 시도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마침내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아홉 분의 스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행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이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대부중들이 동참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실로 한국불교에 있어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고행 방법을 스스로 택한 스님들의 결심에 사대부중들은 그저 놀라움과 걱정스런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깊은 산중과 어려운 경전 속에 묻혀 있었다. 수행을 위해 속세보다는 산중을 택했을 것이고,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을 통해 전파되었으니 산스크리트어와 한문을 알아야 경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의 배경이 이렇다 보니 일반대중이 교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러한 어려움을 파격적으로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바로 상월선원 천막결사라 생각한다. 어차피 한국불교는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발전해야 하는데,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안거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산중에 갇힌 불교가 아닌 도심에서의 포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도라 생각한다. 또한 난해한 법문보다는 참배와 참선 그리고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쉬운 불교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대중에게 감동으로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하리라 생각한다.

아홉 분의 스님이 일곱 가지 계율을 정해 석 달간의 고행에 임하는 동안, 전국의 사대부중들이 참배와 야단법석을 통해 이번 결사에 동참하고 있다. '정'과 '동'이 하나가 되어 한국불교를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의 어원인 큰 수레, 즉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의미를 결사에 임하는 스님들이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 결사는 출가자만의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신도 없는 종교가 어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번 학술대회의 발제자인 황순일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명상을 뜻하는 '매디테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어인 '매디테인먼트'라는 신조어로 설명하고 있다. 절묘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명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불교계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여 세계명상센터 건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명상도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 즐거운 명상운동, 이것이 바로 매디테인먼트가 아니겠는가? 다만, 소수이지만 이번 천막결사의 야단법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

린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개혁운동인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불필요한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운영 방식에 있어 절제와 품격을 유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가 가지는 역할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특히 한국불교는 국가의 어려운 상황마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보여 왔다. 김응철 교수의 발제문에서 이번 천막결사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되는 안거로 자리매김하려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대중의 관심과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불교가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소통과 자비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대부중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는 바이다.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결국 한국불교를 리셋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여러 토론 참가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행보를 통해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결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스님들의 결사 과정이나 수행법문 등을 담은 '상월선원 천막결사 일지'의 발간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결사일지를 국내외 여러 매체를 통해 사대부중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토론문

이범수(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수)

한국사회는 여전히 비탈진 달리는 힘에 부친 열차처럼 헉헉대며 현 시대의 가파른 길을 오르 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격랑 속에 빠져든 현대 한국사회 구성원들도 복잡한 삶의 문제로 허덕이며 숨 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예외일 수 없는, 지난 몇 년간 그 어느 분야보다 변화의 거친 바람을 맞던 불교계가 새로운 변환점을 맞고 있다.

남한산성 흰한 산자락, 위례 별판이 흰히 보이는 자리에 위치한 천막 아래 9비구가 엄동설한 찬바람 속에 몸을 내던졌다.

새롭게 현대 한국불교의 눈을 뜨게 하고자 ‘결사結社’라는 이름하에 전 불교공동체에 말없는 함성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진결사精進結社, 중흥결사中興結社, 화합결사和合結社, 평화결사平和結社라는 기치 를 내걸고, 분명히 향후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햇불처럼 비추고 있다.

그분들이 준 선물에서 무엇을 챙길지는 우리 몫이다.

이전의 봉암사 결사는 계행과 수행을 통해 불교의 중흥을 이루고자 그 기치를 ‘부처님의 법대 로 살자’로 내걸고 역사적 의의를 자리매김하였다.

그리고 2011년 1월 26일 ‘자성과 쇄신 결사 선언’에서 내건 ‘수행결사’, ‘문화결사’, ‘생명결 사’, ‘나눔결사’, ‘평화결사’의 오늘날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5대 항목을 통해 현 시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발제자는 금번 상월선원의 개원은 ‘숲속불교 전통의 현대 도시적 전환’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 다.

발제자는 또한 스님들의 깊은 산속의 안거에 고착된 방식은 시대에 뒤쳐진 고답적인 태도의 결과라 하였다. 그러므로 상월선원에서 벌어진 결사가 승가와 재가를 도심都心 내, 근거리에서 함께 정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소통 공감하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중흥으로 이어지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상월선원이 봉암사 결사의 의의를 이어받으며 향후 도심에서의 계행과 수행 전통을 구축해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의 숲속불교 전통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으며, 향후 새로운 도심선원의 전통으로 제시해야 할 ‘상월선원’에서의 ‘정진 결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인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누구와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미래의 상월선원 같은 ‘도심都心선원’에서 현대 불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이 결여된다면 고령화, 저출산, 취업난, 사회적 불통, 경제 불황, 소득 불평등, 높은 자살률, 이념 대립 등의 힘겨운 삶과 사회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대 불자들을 여전히 품어 주지 못하고 있는 ‘숲속불교 전통’처럼 미래 불교의 대중과의 단절은 여전할 듯하다.

애초 ‘결사結社’에는 선언 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와 ‘소통’할 화두話頭가 들려 있

다.

당연히 정진결사의 기치旗幟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중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품을 것인지에 대한 요체가 그려져야 한다.

또한 '정진결사'가 어렵게 만들어 낸 동력을 '불교 중흥'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 같다.

그에 대한 해법이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의의'에 대한 이러한 과정을 통한 물음과 답변에서 깜깜한 밤 상월霜月처럼 떠오를 것을 기대한다.

한국불교의 물길을 바꿀 상월선원 결사

이병두(종교평화연구원장)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문관無門關 결사 동안거에 아홉 분의 수행자가 입제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상월霜月선원,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차가운 서릿발 내리는 달밤’, 어쩌다 한 번이라면 시 한 수 읊고 그 낭만적인 느낌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한 끼 식사에 목욕은 물론이고 세수조차 하지 않고 머리와 수염도 깎지 않으며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비닐하우스 천막 안에서 동안거 세 달 동안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낭만이나 “우리도 한 번 해볼까……?” 하는 초보 수행자들의 겁 없는 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깜짝 놀라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며 고개를 가우뚱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또 쇼를 하는군. 저게 무슨 참선수행이야, 정치 행위지…….”라며 비난해 대는 이들도 꽤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신심 돈독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불자들은 아홉 수행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무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입니다.

“한국 불교의 새 흐름을 만들어 보겠다.”는 아홉 분의 원력과 결연한 의지에 이런 기도와 격려가 더해져, 세 달 동안거의 반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은, 세상 모든 일이 “한번 해 보자!” 마음먹고 첫 걸음을 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월선원 천막 안의 동안거 결사는 발원했던 대로 시작이 되었고 전체 여정의 반半을 지났으니 이제 정상을 넘어 마지막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가는 일만 남았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아홉 분의 수행자들께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격려를 보내고 함께 와서 철야정진을 하며 야단법석野壇法席을 펼쳐준 수많은 불자들에게도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밖’으로 향한 요구·항의·찬성이 아닌 ‘우리의 안’을 성찰하는 몸부림

저 멀리 대승불교운동에서부터 시작해 고려시대 권력과 밀착하여 부패한 불교계를 반성하고 혁신을 부르짖은 백련결사와 정혜결사를 거쳐, 가까이 있는 조선조 500년과 일제강점기의 부끄러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불교를 바꾸어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며 시작한 봉암사 결사에 이르기까지 2,700년 불교 역사에 등장한 결사는 모두 ‘불교 안’을 다시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고치고 바꾸겠다는 원력과 의지가 모아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 진리를 깨치고 중생을 구원하는 올바른 불제자가 되자!”며 우리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자기 혁명의 운동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조 500년과 일제 강점기의 힘들었던 시기뿐 아니라 민족해방 뒤 맞이한 미군정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 시절에도 제도적·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도 항의의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지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은 봉암사 결사에서 ‘우리 안의 혁명’을 시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둔 덕분일 것

입니다.

1987년의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 실시는 과거처럼 정권에 핍박당하고 끌려다니던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졌고, 입으로 “불교를 위하겠다.”는 말을 이어 가면서 예산 지원 등등의 진통제鎮痛劑와 당의정糖衣錠을 계속 전해 주며 달래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속아 넘어가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권이나 외부 권력이 우리의 자부심을 짓밟거나 권리를 침해하면 항의 시위를 펼치고 수십만 명이 모인 ‘불교도대회’를 열어 정권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는 하였지만, 이런 움직임은 불교 본래의 모습과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칫하면 책임을 ‘밖’으로만 돌리는 어리석음에 멈추고 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상월선원 동안거 결사는 ‘불교 밖’에 대한 요구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보자.”는 원력과 수행 의지를 다지는 ‘자기혁명自己革命’의 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편안한 생활과 세속 권력을 버리고 험난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걸기로 결심하신 것도 이 ‘자기혁명’이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입멸 후 수백 년 만에 태동한 대승大乘불교 운동과 중국에서 일어나 동아시아 각국에 긴 세월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선禪불교의 출발도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해야 한다.”는 ‘자기혁명’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불교계는, 범위를 좁혀서 우리 조계종단은, 지난 세월 권력에 당한 핍박과 권리 침탈에서 연유한 콤플렉스 때문에 ‘모든 문제의 책임을 밖으로 돌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어려움에 대처하느라,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세상을 구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饒益衆生’을 구호로만 외쳤을 뿐 출·재가를 망라한 불자들이 체득體得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상월霜月선원 동안거 결제가 이런 불교의 흐름을 180도 바꾸는 ‘혁명’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상월선원 동안거에 들어간 수행자 아홉 분의 출발 동기는 같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가 크게 바뀌길 바라는 원력과 결연한 의지에서 마음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끌려서 동참하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탓을 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낼 적에는 서로 달랐지만, 동안거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부대중의 응원과 격려 앞에서 모두 원력과 의지를 단단하게 다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분 수행자가 모두 ‘동안거 세 달’을 무사히 마친 뒤, ‘자기혁명’을 이룩하여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혹 건강 문제 등으로 중간에 무문관을 깨고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도 결코 탓을 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세 달 동안 무문관 수행을 마친 분들에게는 물론이지만, 중간에 무문관을 깨고 나오는 분들에게는 또 그분들대로 환영과 찬탄·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벗 삼은 ‘동중정動中靜의 선禪’

수행자 아홉 분이 천막선원에서 무문관 동안거에 들어가 계신 동안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는 법회가 이어지고 때로는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일부에서는 “참선은 고요한 산중에서 하는 것이지, 시끄럽게 장구와 북을 치며 소란스러운 곳에서 하는 게 무슨 수행

이나? 이걸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지난 우리 역사가 그렇게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사람에게는 고요한 산중에서 하는 참선이라야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수행에 몰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수행자라면 ‘시끄러운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히 앉아 있는 어묵동정 행주좌와語默動靜行住坐臥의 순간순간에 모두 참선수행에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경전인 『장아함경』 「유행경遊行經」(상좌부 팔리 경전의 『디가니까야Digha Nikaya』 「대반열반경Mahāparinibbāna Suttanta」에 해당)에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한때 아월阿越마을에 갔다가 한 초막에 있었는데, 그때 기이한 구름이 갑자기 일더니 뇌성벽력이 쳐서 황소 네 마리와 농부인 형제 두 사람을 죽이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당시 나는 초막에서 나와 천천히 경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발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예배한 뒤 나를 따라 경행하므로, 그것을 내가 알고 “저 대중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라고 묻자, 그 사람이 곧 이렇게 물었습니다. “붓다께서는 아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깨어 계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었으며, 그때 자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붓다와 같은 삼매를 얻었다는 말은 듣기 어렵습니다. 뇌성벽력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는데, 혼자 고요히 삼매에 드셔서, 깨어 계셨으면서도 듣지 못하셨다니요……!”라며 감탄하고 곧 내게 말했습니다. “아까 기이한 구름이 갑자기 일더니 뇌성벽력이 쳐서, 황소 네 마리와 농부인 형제 두 사람을 죽여서 저 대중들이 모인 것입니다. 바로 그 때입니다.”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곧 법의 기쁨을 얻고 나에게 예배한 뒤 떠났습니다. 지금 상월선원 무문관에서 정진 중인 아홉 분 스님들이 처음부터 이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아래 법당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는 물론이고 때로는 목탁소리, 그리고 응원·격려를 위해 선원 주위를 돌면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는 불자들의 목소리까지도 참선을 방해하는 악마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스님들 각자의 근기에 따라, 어떤 분은 빨리 또 다른 분들은 다소 늦게 이와 같은 외부 경계에 끌려다니던 것을 멈추고 진짜 용맹정진勇猛精進에 몰입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아니 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 둘과 황소 네 마리가 죽을 정도로 요란스럽게 천둥번개가 쳐 대는데도 그 시끄럽고 요란한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아월마을의 초막 안에서 선정에 들어가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중들이 자연스레 존경과 예배를 드린 장면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아홉 분 수행자들이 계신 위례 신도시 공사 현장 허허벌판에 터를 잡은 천막, 이 상월선원이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의 여정에서 머무시며 선정에 드셨던 ‘아월마을 초막’과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곧 법의 기쁨을 얻고” 수많은 이들이 삼보에 귀의하며 부처님 제자가 되었듯이, 상월선원 동안거 해제 뒤에도 이와 같은 멋진 장면이 펼쳐지기를 기원하고 기대합니다.

* 봉은사 寺報 월간 《版殿》 2020년 1월호와 법보신문

게재(<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79>)용임.

상월선원, 근현대 도심 포교의 새역사를 쓰다

자현(중앙승가대 교수)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고려 말 성리학의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일이다. 이로 인해서 불교는 조선이라는 근세 500년을 송유역불이라는 억압 속에 보내게 된다. 삼국시대로부터 근 1천 년을 자리매김한 불교가 고려 말에 무너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적인 불교 문제 역시 한몫을 차지한다. 이중 가장 크게 주목되는 것은 원 간섭기에 티베트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이 범람했고 육식이 일반화된 사건이다. 『고려사』 권39의 충렬왕 2년조를 보면, 원 간섭기 초기인 1281년에 벌써 절반 정도의 승려가 대처승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즉 고려 말에는 일제강점기처럼 절대다수의 대처승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1326년 3월부터 1328년 9월까지 2년 7개월간 고려에 머물렀던 인도 승려 지공이다. 지공은 인도불교의 계율과 선불교 전통을 강조했고, 이로 인해 중국 강남의 선종과 결합된 자정의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물론 여기에는 원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치를 전개한 측면도 작용한다. 이렇게 등장하는 정화의 영웅들이 바로 태고·보우·나옹·혜근·백운 경한의 여말삼사이다. 즉 고려 말은 불교계에 고승들이 다수 등장했던 황금기임에도, 티베트 라마불교에 대한 정화라는 내부 문제 때문에 한국불교 전체가 무너지고 만 것이다.

조선에 들어오면서 불교는 크게 억압되어 태종은 7개 종파에 242곳의 사찰만 남기고 폐사시키는 철퇴를 가한다. 세종은 한술 더 떠 7개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하고, 사찰 역시 36곳으로 축소한다. 또 부녀자의 사찰 출입과 승려의 도성 출입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된다.

실제로 도성 안의 비구 사찰인 원각사(현 탑골공원)가 연산군 때 폐사되고, 현종 2년인 1661년에는 왕실과 관련된 비구니 사찰인 자수원과 인수원이 철폐된다. 이로써 서울 안에는 승려의 거점인 사찰이 전무한 상황이 된다. 이와 같은 암울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은 일본의 영향이 강해지던 1895년 4월 23일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이다. 약 330여 년의 억압이 해소된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세를 보인 국가이며,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 역시 이동인 등 불교계 인물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조선불교는 국가적인 억압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게 된다. 이때 서울 쪽에 최초로 만들어지는 사찰이 동대문 밖에 새롭게 조성되는 1902년의 원흥사이다. 그리고 1910년에는 도성 출입이 해제된 이후 최초로 사대문 안에 각황사가 창건된다. 이 각황사는 이후 태고사라는 명칭 변경을 거쳐, 현 조계사로 유전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근현대 한국불교의 도심 포교 시작은 110년 전인 1910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10년의 도심 포교는 산중 중심의 전통과, 이승만의 종교개입으로 인한 정화를 거치면서 이렇다 할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물론 구룡사와 불광사 또 능인선원과 금강선원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그러나 같은 시기 서울 안에 초대형 교회들이 만들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초라한 성적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금번 상월선원의 도심 속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웰빙과 힐링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듯하더니, 어느덧 그 흐름이 명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불교는 명상주의에서 태동한 태생적인 명상종교이다. 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선종, 즉 명상종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점에서 현대와 4차산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래에는 한국불교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산사라는 명상주의와 도시를 잘 매치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도심 포교의 실패와 한국불교가 기독교에 제1종교의 자리를 내주는 수모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산사의 청량한 수행 정신을 도심 안에서 살리는 상월선원의 안거와 결사정신은, 한국불교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놀랄 만한 측면이 아닌가 한다.

결사는 한국불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아시아불교의 전통적인 해법이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팽창하는 기독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려 말 성리학에 대한 고려불교의 안이한 대처를 환기시킨다. 이런 점에서 상월선원이 보이는 도시 안에서의 명상 흐름을 확립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확보한다. 왜냐하면, 이는 현대와 미래의 연결 지점에서, 수행과 명상을 통한 반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월선원이 보여 주고 있는 도시 안에서의 명상에 대한 가능성은 현대불교를 넘어서 미래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월선원의 새로운 시도는 여말삼사의 노력에 비견되는 한국불교의 또 다른 이정표이자 거대한 흐름이 아닌가 한다.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의미

혜명(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풍토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교는 어려움에 처할 때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내부적으로 그 원인과 대처 방법을 수행을 통하여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전통이 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행하여진 결집을 비롯하여 402년에 혜원 스님이 여산의 반야대 앞에서 당시 유유민 등 123명과 같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을 기원하는 염불결사가 이루어졌다. 이 결사는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염불결사였지만 『반주삼매경』을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는 불립삼매佛立三昧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즉, 선정 가운데에 능히 시방의 현재 부처님이 그의 앞에서 있음을 보고 눈 밝은 사람이 맑은 날 밤하늘의 별을 보듯 부처님의 숫자 또한 이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고 염불과 삼매수행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후에 많은 결사가 이 백련결사를 참고하여 행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라의 오대산 화엄결사가 행하여져서 화엄교학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결사가 바로 고려시대의 지눌에 의해서 행해진 정혜결사와 원묘국사 요세에 의해서 행해진 백련결사이다.

이 두 결사에서 먼저 보조 지눌은 정혜결사를 통하여 돈오頓悟와 정혜定慧를 강조하면서 당시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며 정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비해 요세는 보조 지눌의 정혜결사의 대상자를 상근기의 수행자들로 파악하고 하근기의 중생을 위한 결사를 결심하였다. 그래서 강진 백련사에서 결사의 대상을 죄장이 매우 두터운 나약한 범부중생으로 규정하고 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백련사에서 8명의 국사가 배출되면서 교세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결사가 1947년 봉암사 결사로 이어지면서 한국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봉암사뿐만 아니라, 특히 정혜결사와 백련결사를 아우르면서 출가수행자나 일반 대중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 수행은 항상 어떤 특정한 장소나 대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고요한 산이나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똑같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결같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례 신도시의 상월선원은 모든 대중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면서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도심에서나 모든 수행이 여법히 진행될 수 있다는 새로운 수행풍토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행의 붐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 수행 가운데 위빠사나에 기반한 심신 의학과 그 프로그램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수행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 간화선의 모습을 살펴보면, 많은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과 정진을 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북방불교의 수행전통을 여법히 가지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게도 된다. 그러나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의 대중화에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간화선을 통하여 충분히 위빠사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심리치유와 질병치유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각종 정신질환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도 조금씩 그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에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는 한국 간화선에 대한 많은 동참과 연구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드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아울러 이 결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언제나 안거 기간에 사찰이나 수행처에 앉아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가 상주하면서 초심자나 초학자 내지 전문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조성된 수행풍토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참고가 되는 『법화경』의 「법사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품에서는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해설하고 서사해주면서 행하는 중생교화의 모습이 설해져 있다. 그리고 이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즉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여래의 방이란,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며 지친 신심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러한 곳을 제공해 주는 우리의 자비심을 말하고 있다. 다음에 여래의 옷이란, 즐거운 일이나 싫은 일에 구애 받지 않고 아무리 칭찬을 받더라도 증상만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심한 일을 당하여도 화를 내지 않는 인욕의 마음의 옷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래의 자리란,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대자비심의 방에 들어가 인욕의 옷을 입고, 공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혜의 눈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인욕의 마음과 대자비심을 갖고서 상월선원의 천막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면서 지역과 대상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풍토를 제공해 주리라 생각된다.